안방-극장가에 춤-실화의 힘! 그리고 거제까지

‘땐뽀걸즈’·‘스윙키즈’, 묘한 공통점 있어

안방도 극장가도 춤의 힘, 그리고 실화의 힘을 기대하고 있다.

3일 첫선을 보인 KBS2 새 월화극 ‘땐뽀걸즈’와 4일 언론배급시사회로 베일을 벗은 영화 ‘스윙키즈’(강형철 감독)이 그렇다. 게다가 두 작품 모두 경상남도 거제 배경으로 한다는 묘한 공통점까지 있어 신기할 정도다.

‘땐뽀걸즈’는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업의 도시 거제에서 ‘땐’스 스 ‘뽀’츠를 추는 여상아이들을 그린 드라마. 동명의 KBS 스페셜 다큐멘터리가 원작이다.

아직 신인에 가까운 박세완과 이주영은 물론 이번 드라마로 데뷔한 주해은, 신도현, 이유미, 김수현 등 거제여상 2학년 6인방이 땐뽀반에 입성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모은 ‘땐뽀걸즈’는 청정 힐링 에너지를 선사하는 샛별들의 반란이 되고 있다. 비록 월화극장 동식나대 경쟁작인 MBC ‘나쁜 형사’에는 시청률 면에서는 많이 밀리기는 하지만, 문채원 주연의 tvN ‘계룡선녀전’이나 김유정 주연의 JTBC ‘일단 뜨겁게 청소하라’와는 나란히 3%대로 박빙 대결을 펼치고 있다. 내로라 하는 스타들의 드라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땐뽀걸즈’ 속 신예들의 활약이 남다른 것.

이처럼 신인 등용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땐뽀걸즈’에서 이들이 펼치는 10대 소녀들의 고민과 우정에 대한 소소하지만 섬세한 이야기가 많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운데, 이들을 한데 모이게 한 댄스 스포츠는 드라마에 힘을 톡톡히 보태는 견인차가 되고 있다. 음악과 춤이 가세한 장면들은 눈길을 모으기 충분한 것. 게다가 4일 방송에서는 박세완과 남자주인공 장동윤이 춤 연습에 매진하는 가운데 바다를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며 설레는 러브라인까지 기대하게 했다.

그런가 하면 영화 ‘스윙키즈’는 1951년 거제 포로수용소에서 오직 춤에 대한 열정으로 뭉친 오합지졸 댄스단이 결성되는 이야기.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상황에서 포로수용소에 모인 사람들이 이념을 이유로 피 튀기는 싸움을 펼치지기도 하지만, 국가와 이념, 민족과 인종의 경계를 넘어선 주인공들이 한마음이 되어 춤사위를 펼치려는 이야기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이같은 ‘스윙키즈’는 창작 뮤지컬 ‘로기수’를 영화화한 것으로, 뮤지컬은 한장의 사진에서 출발했다. 영화에도 등장하는, 거제 포로수용소 안에서 탈춤을 춘 사람들의 사진자료가 모티브가 돼 ‘스윙키즈’의 얼개가 짜여지게 된 것.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춤을 통해 이념과 갈등을 뛰어넘는 이야기는 동족 상잔의 아픔을 여전히 기억하는 관객들에게 위로인 동시에 우리의 역사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기도 한다. 시사회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형철 감독은 “이 영화에서 악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념이었으면 했다”면서 “이념이 시스템 위에서 인간을 휘두르는 것이 부조리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주인공 로기수 역을 맡은 엑소의 멤버인 도경수와 브로드웨이 최고의 탭댄서로 꼽히는 자레드 그라임스 등이 펼치는 흥겨운 탭댄스는 관객들의 어깨를 함께 들썩이게 하는 것은 물론이다. 주인공들뿐 아니라 조연들의 군무나 댄스 경합도 있어 즐거움이 배가 되고, 틈틈이 등장하는 브라스 밴드의 경쾌한 음악도 영화의 흥을 북돋는다.

그동안 ‘과속스캔들’과 ‘써니’ 등을 통해 따뜻한 이야기과 음악을 결부해 대중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어온 강형철 감독이 4년만에 내놓는 ‘스윙키즈’은 관객들에게 어떤 반향을 일으킬지 기대가 모아진다.

특히 이번 ‘스윙키즈’는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특수성을 배경으로 하는 만큼 관객들에게 좀더 강렬한 여운을 남기지 않을까 귀추가 주목된다.

‘아쿠아맨’ 수중 세계 전격 공개 “상상 속에서만 가능”

영화 ‘아쿠아맨’에 등장하는 히어로의 새로운 무대인 수중 세계의 모습이 전격 공개됐다. 오는 19일 개봉하는 ‘아쿠아맨’(감독 제임스 완 · 배급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은 땅의 아들이자 바다의 왕, 심해의 수호자인 슈퍼히어로 아쿠아맨의 지상 세계와 수중 세계를 오가는 위대한 여정과 탄생을 그린 액션 블록버스터물. 영화 속 이야기의 3분의 2가 물속에서 진행된다. ‘아쿠아맨’ 측은 “아틀란티스와 주변 왕국을 전에 본 적 없는 모습으로 담아내는 데 주력했고 배우들의 머리카락부터 액션까지 수중 세계의 움직임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아쿠아맨은 다른 세계에서 등대지기인 아버지에게서 인간성을, 아틀란티스 여왕인 어머니에게서 초능력을 물려받아 수중에서 숨을 쉴 수 있고, 엄청난 속도로 헤엄칠 수 있으며, 깊은 수심에서도 견딜 수 있는 막강한 능력이 있다. 심지어 물고기와 말하는 능력까지 있어 해양 생명체와 텔레파시로 소통할 수 있다. 물속에서의 능력은 물론 육지에서도 초능력을 지녔고 독보적인 힘, 강화된 감각, 뚫리지 않는 피부가 있다. 그리고 이 능력은 지구의 육지와 바다라는 두 세계를 모두 지켜야 하는 위치에 선다.

‘아쿠아맨’에서는 수중 세계가 이야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제임스 완 감독은 “마치 우주처럼 우리 세상과 완전히 다르고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세계”라면서 “수중에서 사물의 모양이 어떻게 보일지, 머리카락이 어떻게 움직일지 알지 못했다. 아틀란티스인에게 물은 우리로 치면 공기와 같다. 그들이 나고 자란 환경이다. 그래서 그들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영화의 대부분은 호주의 브리즈번 남쪽, 동부 해안에 있는 골드코스트와 퀸즐랜드에서 촬영됐다. 아틀란티스의 대부분이 후반 작업에서 CGI를 통해 탄생했지만, 아틀란티스 왕의 방, 대경기장, 옴 왕의 군함, 데드킹의 장엄한 왕좌, 불의 경기장과 갑옷의 전당, 따개비와 해초로 뒤덮인 침몰한 범선 등 50개 이상의 세트가 실제로 만들어졌다.

이에 영화 속 아틀란티스는 현대 기술과 고대 풍습이 한데 어우러지고, 고도로 발전한 동시에 여전히 고대의 규범과 풍습이 살아있어 검투사의 경기장이 있는 로마 같은 거대 수중 도시부터 머리를 휘날리며 헤엄치는 바다 짐승까지 비현실적인 요소를 상상 가능한 모습으로 탄생했다.

‘컨저링’ 유니버스를 비롯해 ‘분노의 질주: 더 세븐’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한 제임스 완 감독은 ‘아쿠아맨’에서 비로소 액션에 공포, 로맨스, 아틀란티스의 역사와 신화가 더해진 완전히 독창적인 하나의 세계를 완성했다. 그의 첫 슈퍼히어로 영화로서 과연 어떤 새로운 수중 유니버스를 선보일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고 외신들은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고 대단한 액션 장면들과 숨막힐 정도로 환상적이고 아름다운 비주얼에 감탄했다.

최고의 히어로 캐릭터를 완성한 제이슨 모모아의 연기와 카리스마 넘치는 앰버 허드와의 케미, 여기에 옴과 블랙 만타라는 신스틸러 빌런까지 모든 면이 상상을 뛰어넘는 재미를 전한다면서 완벽한 어드벤처 영화의 탄생을 예고한다.

아틀란티스 7개 바다 왕국을 아우르는 방대하고 눈부신 수중 세계를 배경으로 제이슨 모모아가 액션 가득한 모험의 주인공으로 나섰다. 맹렬한 전사이자 아쿠아맨의 여정에 동행하는 메라 역에 앰버 허드, 아서의 어머니인 아틀라나 여왕 역에 니콜 키드먼이 출연해 강한 캐릭터로서의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아쿠아맨의 이부 동생인 아틀란티스의 왕인 옴 역에 패트릭 윌슨과 복수를 꿈 꾸는 블랙 만타 역의 야히아 압둘 마틴 2세가 아쿠아맨이 맞서야 하는 두 명의 치명적인 빌런으로 분했다.

아틀란티스 왕족의 자문의원 벌코 역의 윌렘 대포와 메라의 아버지인 네레우스 왕 역의 돌프 룬드그렌 등 연기파 배우들이 대거 등장해 눈길을 끈다.

제임스 완 감독은 “여러 차원에서 이 영화는 소원 성취에 관한 이야기고, 나도 하나의 세계를 구축하는 영화를 찍고 싶다는 개인적 소원을 성취했다”면서 “다양한 풍경, 캐릭터, 의상, 생명체, 모든 것을 만들었다. 내 꿈이 이루어진 기분이다. 누구보다 창의적인 제작진과 재능 넘치는 배우들과 함께 여정에 오를 수 있어 행운이었다”고 전해 영화적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을 확인시켜 준다. 최근 프리미어 시사로 공개된 후 “‘다크 나이트’ 이후 DC 최고의 영화(IGN's Tom Jorgensen has branded it “the best DC movie since The Dark Knight”)”라는 평으로 기대를 한껏 고조시키고 있다.

새로운 히어로 무비의 탄생을 예고하는 ‘아쿠아맨’은 12월 19일 개봉한다.

방탄소년단, 빌보드 결산차트서 ‘톱 아티스트’ 8위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올해 미국 빌보드 연말 결산에서 ‘톱 아티스트’ 8위를 차지했다.

4일(현지시간) 빌보드가 발표한 연말 차트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톱 아티스트’에서 지난해 10위에서 올해 두 단계 상승하며 한국 가수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1위는 드레이크, 2위는 포스트 말론, 3위는 에드 시런이다.

이와 함께 방탄소년단은 ‘톱 아티스트 듀오·그룹’ 부문에서 미국 4인조 밴드 ‘이매진 드래건스’에 이어 2위에 오른 것을 비롯해 ‘소셜 50 아티스트’ 1위에 올랐다. ‘소셜 50 아티스트’ 1위, ‘월드 앨범 아티스트’ 1위, ‘인디펜던트 아티스트’ 1위도 차지했다. ‘톱 빌보드 200 아티스트’에서는 21위다.

매년 빌보드가 발표하는 ‘연말 차트’는 한 해 동안 해당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앨범과 노래, 아티스트를 선정해 순위를 정한다.

방탄소년단은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올해 앨범 2개로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 글로벌 그룹이 됐다.

특히 이번 결산 ‘빌보드 200 앨범’ 차트에서는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 3개 연작을 모두 순위권에 진입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 85위,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 101위, ‘러브 유어셀프 승 허’ 150위다.

소속사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한국 가수 최초이자 최고 기록”이라면서 “‘러브 유어셀프’ 시리즈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높은 음악적 완성도는 물론 대중성도 인정받은 결과”라고 자랑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8~9일 타이완 타오위안 국제 야구장에서 ‘러브 유어셀프’ 아시아 투어를 이어간다.

오늘의 운세 2018년 12월 6일 목요일 (음력 10월 29일)

▶쥐띠 삶에는 예행연습이 없다. 1, 4, 6, 8월생은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올바른 것인지 한 번쯤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ㄴ, ㄹ, ㅇ 성씨는 애정 문제에 연연하다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다. 오늘은 새로운 각오를 다질 것.

▶소띠 남을 쉽게 믿지 말고, 의지하려고도 하지 말라. 1, 3, 8, 12월생은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는 격.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말고 홀로서기를 익힐 때 손실을 막을 수 있다. ㄱ, ㅂ, ㅅ 성씨는 주위를 의식하지 말고 주관대로 행할 때 하는 일이 순탄하다.

▶호랑이띠 단계를 밟아 목적지에 도달해야만 구설에 오르는 것을 면할 수 있다. 4, 7, 8, 10월생은 경쟁자를 추월한다면 부정 의혹을 받으니 과욕을 버리고 순리대로 하라. ㄱ, ㅂ, ㅎ 성씨는 옛것을 멀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승부를 걸 것.

▶토끼띠 친지나 친구 도움으로 행운이 올 듯. 1, 3, 5, 9월생은 일이 순조롭게 되는 데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부부는 늦은 시간 말조심하라. 의견 충돌이 예상된다. 남성은 아내 말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ㄱ, ㅇ, ㅈ 성씨는 남, 서쪽에서 힘이 생긴다.

▶용띠 성질을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 3, 5, 7월생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를 찾으라. 목표를 정해 두고 차분하게 계획대로 추진할 때 길이 열린다. 성격이 오만하면 타인이 등을 돌린다.

▶뱀띠 상부상조하는 사회인 만큼 7, 8, 9월생은 베푸는 보람을 행복과 연결하자. 흰색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색이다. ㄱ, ㅂ, ㅎ 성씨는 무슨 일이든 조건 없이 베풀다 보면 사업에 좋은 변화가 생길 듯. 북, 동쪽이 길하다.

▶말띠 신용을 잃으면 정말 어려울 때 도움을 받지 못하니 3, 4, 7, 9월생은 책임지지 못할 약속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매사 뜻한 대로 안 되더라도 좌절은 금물. ㄴ, ㄹ, ㅇ 성씨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으나 가정에 더 많은 관심이 둬야.

▶양띠 2, 4, 5, 7월생은 맡은 일을 적당히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남보다 배로 고통을 겪는다. 매사 능력 범위 안에서만 일을 맡을 것. ㄴ, ㅅ, ㅇ 성씨는 하는 일에 불만이 많구나.

▶원숭이띠 자금난에 시달리는 1, 5, 8, 9월생은 북쪽에 있는 ㅁ, ㅂ 성씨에게 부탁을 해보라. 생각 외로 당신 뜻을 이해하는 사람일 듯. ㅅ, ㅇ, ㅊ 성씨는 특별히 좋은 물건을 손에 넣는 행운이 있는 하루다. 애정은 부드럽게 대화하라.

▶닭띠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순간순간 닥치니 1, 3, 5, 10월생은 흐름을 잘 포착해 해결할 것. ㄴ, ㅇ, ㅎ 성씨는 이성을 한 명만 택하라. 남의 말에 쉽게 현혹되지 말고 신중히 생각해 결정하라.

▶개띠 이사해서 사업을 시작한 1, 3, 5, 10월생은 대성할 수 있겠다. 과감한 용기가 이익을 주는 격. 직장인 ㄱ, ㅅ, ㅎ 성씨는 매사 기밀을 유지하고,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주위 사람에게 **호**평을 듣는다. 지나치게 고집을 세우면 일을 망치니 주의하라.

▶돼지띠 사회는 항상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8, 10, 12월생은 자기 계발에 전념하면 주위 찬사가 따를 듯. 여러 사람에게 조언을 듣는 것도 큰 도움이 되니 귀 기울일 것. ㄴ, ㅈ, ㅊ 성씨는 고집은 금물. 여유를 갖자. 회색 옷이 행운의 색이니 활용하라.